대형할인점 PB(자체브랜드)제품

지역 중소업체 제품 '외면'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등 대부분 수도권서 구매

홈플러스와 이마트, 롯데마트 등 광주·전남지역의 20여개 대형 할인점들이 최근 PB(Private Brand·자체브랜드) 제품의 매출비중을 크게 확대하면서 물품구매량을 늘리고 있으나 정작 지역 중소업체들의 제품은 사들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PB제품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업체에서 구매해 팔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면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동광주점과 계림점 등 광주지역 홈플러스는 지난 25일 'PB 도우미' 서비스 제도를 도입, 고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PB 도우미'들은 제과·면류 등 가공식품과 샴푸·세제 등 생활용품을 고객들에게 안내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홈플러스는 올해 말까지 1만여개의 PB제품을 1만1천개까지 늘려 매출비중도 3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신세계 이마트는 지난해 청과·야채에서부터 가전·생활용품에 이르는 6개 PB 브랜드, 3천여개 품목을 출시했다. 특히 이마트는 같은 매장내에 PB 상품과 NB(National Brand·제조업체 브랜드)와 나란히 진열, 품질과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해외에서 물건을 직접 구해오는 해외 직소싱(Sourcing) 물량을 늘리면서 새로운 유통 트렌드를 이끌었다.

이마트는 품질은 NB와 엇비슷하면서 가격은 20~40% 저렴한 PB제품 판매액을 2006년 9천200억원(매출구성비 9.7%)에서 2010년 2조4천억원(〃 23%)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롯데마트 역시 쇠고기를 비롯해 청과·건해산물·곡물·청소용품 등 13개 PB 브랜드, 6천900여개 품목을 갖춰 전체 매출의 27.6%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대형 할인점들이 이처럼 PB제품 판매확대에 열을 올리면서 소비자들에게 값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이들 할인점들이 지역 중소업체에서 구매하는 PB제품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점들은 대부분의 제품을 서울·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할인점 측은 "지역 중소업체의 경우 지속적으로 수준높은 제품을 공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체계적인 공급체계를 갖추고 있는 수도권 업체를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지역에도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보유한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뿐 아니라 공산품들이 적지 않은데 할인점 구매담당자들이 눈도 돌리지 않는다"면서 "지역 유통업체라면 지역 중소업체와 상생하는 차원에서라도 NB 입점업체를 늘리는 한편 PB제품을 발굴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토박이 할인점체들을 몰락시키고 연간 1조원에 가까운 매출을 외부로 유출시켜온 대형 할인점들이 지역업체를 외면해서야 되겠느냐"면서 "중소업체들도 납품체계를 갖춰야 하지만, 할인점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올 가을 패션 광주신세계 백화점은 27일 올 가을 패션동향을 엿볼 수 있는 '가을 패션쇼'를 개최해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광주신세계 제공〉

지역 상장사 유동성 크게 악화

12월 결산법인 13개사 현금성 자산 2천억 … 전년보다 13% ↓

올 들어 광주·전남지역 주요 상장사들의 현금성 자산이 크게 줄어드는 등 유동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증권선물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광주·전남 12월 결산법인 13개사의 상반기 기준 현금성 자산은 2천2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2천340억원)에 비해 13.3%(311억원) 감소한 것으로, 지역 주요 기업들의 유동성이 악화됐음을 의미한다.

현금성 자산이란 현금, 통화대용증권과 정기예·적금 등 단기자금 목적으로 소유하거나 만기가 1년 이내인 단기금융상품 등을 가리킨다. 기업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자금으로, 해당 기업의 유동성과 직결된다.

금호산업은 6월 말 현재 현금성 자산이 364억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100억원 감소했다. 한국화인케미칼도 같은 기간 현금성 자산이 34억원 줄었다.

반면 보해양조는 6월 말 현재 현금성 자산이 136억원으로 6개월새 34억원 늘었으며, 광주신세계와 대유신소재는 각각 26억원, 14억원 증가했다.

한편 광주신세계는 현금성 자산이 671억원으로 13개사 가운데 가장 많았으며, 금호산업(364억원), 한국화인케미칼(344억원), 금호타이어(140억원) 등의 순이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재래시장 편의·부대시설 제한 건축·도시 계획법 기준 완화를"

'소기업 소상공인위원회' 참석 광주 재래시장 관계자들 건의

광주 전남지역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편의·부대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건축·도시 계획법 적용 기준의 완화가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남광주 시장, 양동시장 등 광주 재래시장 관계자들은 27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 주최로 센트럴 호텔에서 열린 '광주전남소기업소상공인위원회'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과 냉동창고를 설치하려 해도 법적 제약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건축 및 도시계획관계법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한국음식업중앙회 광주지회는 조류인플루엔자(AI), 미국산 쇠고기 파동 등으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식당들이 관련법에 따라 10%의 부가세를 포함해 음식값을 받고 싶어도 소비자들의 반발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비자 인식전환을 위해 당국에서 공익광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공인중기사협회 광주시지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시행 중인 영세사업자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 공인중개사를 제외한 것은 부당한 조치로 개선을 촉구했다.

이 자리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으며, 소상공인 지원기관 중소기업협동조합, 소기업상인 및 직능 단체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모든 발주 공사 원가 사전 분석

예산 누수 막는다

전남도 내달 1일 부터 '계약심사'

전남도는 다음달 1일부터 공사와 용역, 물품에 대해 입찰 및 계약 사전 원가 심사를 통해 예산을 절감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남도는 '계약심사' 업무를 통해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철저한 원가분석과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시공품질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심사대상은 전남도가 발주하는 종합공사의 경우 5억원 이상(전문공사 3억원이상)이고 용역은 2억원 이상, 물품 구매·제조는 2천만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심사대상이 된다. 설계변경은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 금액의 10% 이상 증가할 때 심사를 해야 한다.

시·군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재배정 사업에 한해 종합공사는 10억원(전문포함)이상, 용역은 5억원이상, 물품은 1억원 이상이면 심사대상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외국인 광주·전남 땅 투자 '주춤'

6월 말 3천583만㎡ 보유 … 전년비 0.3% 증가 그쳐

올 들어 외국인들은 수도권의 토지를 대거 사들인 반면 광주·전남 등 지방에 대한 투자 증가세는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광주·전남의 외국인 보유 토지는 3천583만㎡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6월(3천573만㎡)에 비해 0.3%(10만㎡)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상반기 증가율(2.1%)을 크게 밑돌았다. 2012년 여수 엑스포 유치 등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투자는 되레 감소한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시·도의 경우도 비슷하다. 6월 말 현재 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토지는 2억196만㎡로 지난해 말에 비해 1.9% 늘었다.

지난해 1년간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가 9.9%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올 들어 증가세가 한풀 꺾인 셈이다.

또 올해 외국인의 토지 투자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상반기 외국인 토지 증가분 중 44.2%가 경기도에 몰린 가운데 인천(16.3%), 서울(12.4%) 등 수도권에 72.9%가 집중됐다. 용도별로는 외국인이 올해 취득한 토지 가운데 선산 등 기타용도가 53.2%를 차지했으며, 주거용(39.2%), 공장용(9.5%), 상업용(2.8%) 등의 순이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투자자 교육 워크숍'

29. 30일 나주 중흥골드스파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이하 투교협)가 주최하는 '2008 투자자교육 워크숍'이 29일과 30일 나주 중흥골드스파 리조트에서 열린다.

워크샵에는 박준영 전남지사와 황건호 투교협 의장(증권업협회장)을 비롯한 국내 증권 및 금융 유관기관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다.

투교협은 증권업협회·증권선물거래소·증권예탁결제원 등 증권 및 금융관련 9개 유관기관이 증권과 자산운용 분야의 체계적인 투자자교육을 위해 만든 단체로, 지난 2005년 말 결성이후 광주전남지역협의회 등 전국 8개 지역협의회를 통해 매년 올바른 투자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